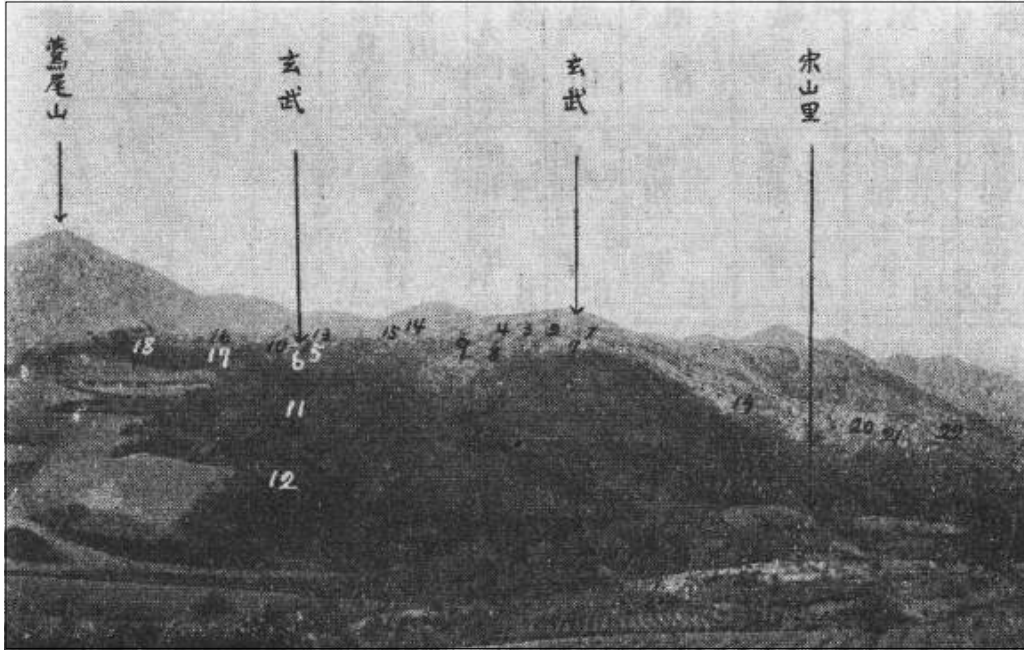


(불 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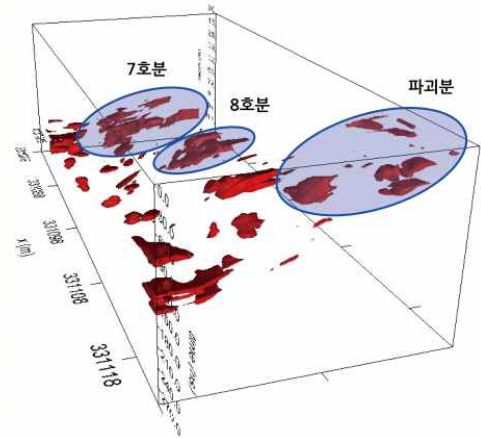
## 사 진 자 료



1933년 가루베가 일본 『고고학잡지(23-9호)』에 게재한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전경과 고분의 위치. 가루베는 조선인들의 생계형 도굴이 성행하여 백제고분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1,000여기의 공주지역 고분들을 탐방하고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다. 이 중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은 10여기 정도라고 함



2019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현황. 무령왕릉을 포함하여 정비된 고분은 7기, 일제강점기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위치를 알 수 없었던 고분은 6기, 새롭게 확인된 추정 고분은 41기이다.(위쪽이 북쪽)



1~4호분 정비구간에서 확인된 일제강점기 조사 고분의 지하 흔적.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해 무령왕릉 주변에서 지하 구조물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.



무령왕릉 서벽 창문모양 장식에 사용된 '중방(中方)'명 벽돌(좌)과 이번 조사에서 수습한 '중방'명 벽돌(우). 벽돌의 크기와 글자의 위치로 볼 때, 무덤방 벽면에 세워 창문모양을 장식한 것과 유사하다. (무령왕릉 사진: 국립공주박물관 제공)